

«티칭 랩(Teaching Labs)»: 교실에서의
가르침과 배움의 시작으로서의 현대미술
아카이브 컬렉션

수잔나 청 육 만

*Teaching Labs: The Archival Collections
of Contemporary Art as the Point of
Departure for Teaching and Learning in
Classrooms*

Susanna Chung Yuk Man

들어가며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Asia Art Archive)는 아시아 현대미술사 연구, 학술 활동 및 교육에 대한 인식 확장과 지원 확대를 목표로 2000년 설립된 독립 비영리 단체이다. 가치와 규모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의 아카이브 컬렉션은 무료 온라인 웹사이트와 홍콩에 위치한 자료 도서관을 통해 제공되며 다양한 연구, 레지던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식 확장과 공유를 위한 교육 수단과 커뮤니티 양성에 힘쓰고 있다.

교육 & 참여팀은 2009년에 시행된 홍콩의 미술교육 교과과정 전면 개편에 앞서 교과과정을 위해 필요한 현대미술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21세기 미술과 교육에 대한 생각을 선도하고 교실에서의 미술 교수법을 풍부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 & 참여팀의 모든 프로그램은 교사 및 미술 교육자들과 함께 구축하는 학습 커뮤니티에 기반한다. 2017년부터는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의 교육 콘텐츠를 학생들에게 전달할 교사 지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홍콩 내 250곳이 넘는 학교의 학생들과 소통해왔다. 현재까지 80회(학생 1,800명)의 단체 방문을 통해 학생들이 연구와 학습을 위한 아카이브와 컬렉션 이용 방법에 대해 배우고 200명이 넘는 교사들이 교육전문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의 연간 교육 전문가 양성 시리즈인 «티칭 랩»의 사례를 통해 교육 & 참여팀의 접근 방식과 성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티칭 랩»은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의 아카이브를 활용한 홍콩 내의 교육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역사와 문화적 시각을 탐구하고, 새로운 예술 형식과 교육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티칭 랩»

시리즈는 아카이브 자료와 실제 교과과정을 의미 있게 연결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현재 홍콩 내 학교 및 교육 전문가들과의 협업 관계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커뮤니티를 양성하며 정규 교과과정 내 현대미술 교육 및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식으로서의 미술

미술은 사회·문화적,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교육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변화하는 21세기 교육에 대한 요구와 맥락에 맞춰, 많은 미술 교육 전문가와 학자들이 동시대 미술을 통해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적, 세계적 문제들을 학생들이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회 반응적(socially-responsive) 접근법을 제안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이 문제에 대해 스스로 건설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예술을 위한 예술’이나 단순한 자기표현의 미적 가치를 넘어, 동시대 작가는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사회·문화적 이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사유한다. 젊은 세대의 삶과 직결되는 현실 문제들에 대해 발언하는 그들의 작업은 질문 기반(enquiry-based)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며 기존의 실기 중심 미술 학습에서 작품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포괄적으로 탐색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작업은 학생들이 현재 살고 있는 시대와 장소에 대한 사유뿐만 아니라 그곳으로부터 촉발된 새로운 변화와 가능성을 상상하게 한다.

홍콩의 사례와 맥락: 교과과정 개편

2009년에 시행된 홍콩 중고등학교 미술교육 교과과정 개편은 교사들이 기존의 실기 위주 교육 방식을 탈피하고 더욱 포괄적인

학습 경험을 위한 새로운 교육 방법론을 탐색하도록 기획되었다. 새 교과과정과 평가 기준은 글쓰기(감상과 비평)와 실기 부문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이 폭넓은 문화적, 역사적 맥락 안에서 작품을 분석하고 사유하며, 예술적 표현으로 개인적 경험과 생각을 맥락화시키는 능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변화 앞에서 교사들은 교과과정을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 현대미술에 대한 본인들의 지식수준을 우려했다. 그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이 교실에서는 현대미술을 직접 접하기가 매우 어려운 홍콩 내 환경 또한 현대미술을 교과과정에 도입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티칭 랩»

이러한 환경에서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는 기관이 보유한 아시아 현대미술사 자료를 토대로 공공교육을 지원하고 보완할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사고를 이끄는 리더이자 교사들의 지속적인 협력자로서 함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동시대 맥락 안에서 미술과 교육의 역할을 재고하고자 했다.

이 같은 목표를 이루고자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의 교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은 홍콩의 공립 및 국제 학교 교사 15명으로 구성된 교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의 조언을 통해 프로그램이 홍콩 교육 커뮤니티의 환경과 요구에 적합한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 10년간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현대미술의 특성과 교사들의 교육방식을 반영하여, «티칭 랩»은 2018년부터 연대순이 아닌 주제별로 구성된 미술사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주제는 매년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의 우선 연구 과제(content priorities)를 기반으로 선정된다.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 연구 컬렉션의 핵심적인 관심사를 반영하는

우선 연구 과제는 저술 활동, 전시 및 교육학 등 아시아 미술사가 기록되는 다방면의 통로를 조명하고 국경을 넘어 문화를 연결하는 다양한 생각을 탐색한다. 그뿐만 아니라 전통과 동시대적 표현을 나란히 두고 연구하며, 퍼포먼스 등 일시적 예술 형태에 대한 연구는 물론, 불평등한 여성의 재현 방식 등 미술사와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의 컬렉션에서 그동안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던 주제들을 사유한다. «티칭 랩»의 주제는 이 같은 우선 연구 과제 중 선정되며 각 프로그램은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 연구 컬렉션을 활용하고 이를 현대미술에 대한 학습 및 교육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2018년 «티칭 랩»의 주제는 ‘미술사 속 여성’으로 선정되었으며 2019년에는 ‘퍼포먼스 아트’를 조명한다.

프로그램 디자인

프로그램을 통한 효율적인 교과과정 확장을 위해 교육 & 참여팀은 «티칭 랩» 시리즈와 온라인 자료를 통합적으로 기획한다. 두 프로그램 모두 컬렉션 활용을 통한 혁신적인 미술 교육 및 작업 방식 탐색, 궁극적으로는 창의력 증진을 목표로 하며 역사적 맥락, 예술 활동 및 교육 사이의 의미 있는 연결고리 형성에 중점을 둔다. «티칭 랩»의 구성 방식은 교사들의 전문 지식을 제고하고 습득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기획되었다.

«티칭 랩»은 총 이틀에 걸쳐 실행된다. 첫날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의 컬렉션과 역사적 맥락을 소개하는 강연에 이어 이틀날 작가 겸 교육 전문가가 이끄는 워크숍에서는 참여 교사들이 강연에서 소개된 미술 작업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교사들은 학습한 내용을 교내 수업에서 이행하고 2개월 후 다시 모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한다. 참여 교사들이 제공하는 모든 교육

아이디어는 온라인 자료실에 기록되어 홍콩은 물론 해외 수많은 교육자와 함께 공유하게 된다.

2019 «티칭 랩»: 퍼포먼스 아트

2019년의 «티칭 랩» 시리즈는 퍼포먼스 아트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퍼포먼스 아트는 비전통적이고 비물질적인 장르만의 고유한 표현 방식으로 예술과 개인,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탐색하며 현대미술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퍼포먼스 아트는 난해한 주제로 남아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퍼포먼스 작품이 사회적, 정치적 이슈와 연관되어 다루기 민감한 작업으로 치부되었고, 이는 교과과정에 소개되는 데 있어 큰 장애물로 작용하였다.

올해 진행된 두 번의 «티칭 랩»은 퍼포먼스 아트를 둘러싼 이같은 편견을 해체하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이를 소개할 새로운 방안들을 탐색하고자 했다. 쾨망호 프로그 킹(Kwok Mangho Frog King) 아카이브와 리 웬(Lee Wen)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은 ‘퍼포먼스 아트는 무엇인가?’, ‘왜 중요한가?’, ‘퍼포먼스 아트는 미술과 미술교육에 어떠한 영감을 주는가?’ 등의 질문을 탐구했다. 프로그 킹과 리 웬의 사례를 통해 교사들은 홍콩과 동남아시아에서 퍼포먼스 아트가 전개되어 온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 대해 학습하고 작가 겸 교육자가 주관하는 핸드온 워크숍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학생들에게 전달할 자신감을 길렀다.

또한 퍼포먼스 아트에 관한 더욱 깊이 있는 교육 및 학습경험을 위해 마련한 토론 세션에서는 교사들이 서로에게 질문하고 교육 과정에 있어 직면하는 문제점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같이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동료 지원 형식의 배움과

나눔을 통해 새로운 학습 커뮤니티를 구축했다.

교사들의 지원 파트너로서 교육&참여 프로그램은 교사들의 학습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오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그에 따라 올해는 퍼포먼스 아트 감상에 대한 추가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회화나 조각 같은 전통적인 매체에 관해서는 익숙한 반면, 퍼포먼스 아트에 관한 낯섦에 대해 이들의 이해를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퍼포먼스에 대한 정확한 비평과 감상을 위해 어떠한 기준을 세워야 하는가?’ 등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교육 & 참여 워크숍에서는 현장조사,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의 소장 자료 및 구체적인 작품들을 사례로 퍼포먼스 아트 감상법에 대해 논의하고 기초적인 미학 이론을 검토했다. 더 나아가 교사들의 자신감을 강화하고 학생 지도에 대한 다양한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교육 성과를 개선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노력은 참여 교사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미래를 바라보기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는 소장하고 있는 아카이브를 가르침과 배움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현대미술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견고한 학습 커뮤니티를 구축했다. 그리고 이같이 형성된 커뮤니티는 잠재적으로 더 많은 교육자와 학생들에게 지속 가능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한편 공공교육 환경 속에서 아시아 현대미술에 대한 근본적인 자료와 자원 부족은 비단 홍콩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교육 환경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지난 10년의 경험을 발판으로 삼아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는 자체 프로그램과 온라인 자료실은 물론 같은 비전을 공유하는 아시아 지역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같은 협력관계를 통해 전 세계 학생들의 학습경험을 폭넓게 확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더욱 풍성한 미술사 전개에 의미 있게 기여하고자 한다.

수잔나 청 육 만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 교육팀장

2007년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의 교육&참여팀(Learning and Participation Department) 창설 이후 현대미술에 대한 인식 제고, 문화적 학습 전략 선도와 홍콩 국내 및 인도, 베트남, 스리랑카, 미얀마와 네팔 등 해외 기관 협력관계 증진 업무를 맡아왔다. 테이트 모던과 로열 세익스피어 컴퍼니, 영국 국립극단, 대영박물관이 공동주최한 «함께하는 세계(Worlds Together)»(런던, 2012), 샤프자 미술재단이 주최한 «3월 회의: 교육, 교류와 참여(March Meeting: Education, Engagement and Participation)»(샤프자, 2016), «제35회

세계 미술교육 학회»(대구, 2016), «확장된 현장: 홍콩 미술교육에 대한 재고(Expanded Field: Redefining Arts Education in Hong Kong)»(홍콩, 2019) 등 다수의 미술관 교육 포럼에 발표자 및 사회자로 참여한 바 있다.

홍콩대학교에서 학사와 교육학 석사를 취득하였고, 2016년에는 클로어(Clore) 리더십 프로그램의 국제 펠로우로 선정되었으며 그에 앞서 2010-2011년에는 아시아 문화 협의회의 스타 재단(Starr Foundation) 펠로십에 선정되어 미국 다수 미술기관의 관람객 개발과 교육 프로그램을 리서치한 바 있다. 현재 홍콩 링난대학교 교과과정 자문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Introduction

Asia Art Archive (AAA) is an independent non-profit organisation founded in 2000 in response to the urgent need for recent art histories of Asia to be made visible and accessible for global research, scholarship, and education. With one of the most valuable and comprehensive collections of material on recent histories of art from Asia, ever-growing and freely available from our website and onsite library in Hong Kong, AAA builds tools and communities to collectively expand knowledge through research, residency, and educational programs.

Initiated in 2009 as a response to the lack of resource materials on contemporary art in classrooms—in particular for Hong Kong visual art teachers at the point of a major curriculum reform—AAA Learning & Participation (L&P) aims to be a thought leader in art and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and to enrich the ways art is taught in the classroom.

L&P is committed to building a learning community with teachers and artist-educators. Since 2017, L&P has been strategically focusing on educators who can bring what they learn at AAA to their students, and has reached out to over 250 schools in Hong Kong. Over 80 school groups (1,800 students) have visited AAA and learned how to use the archive and its collection as a resource for research and learning, and over 200 teachers have participated in our teacher professional programs.

In this presentation, *Teaching Labs*, AAA's annual teacher professional development series, will be highlighted to illustrate the approaches and impacts of L&P. The series aims to respond to the current educational needs in Hong Kong by activating AAA's Collections. Through exploring multiple histories and cultural perspectives, unveiling

artistic practices and pedagogies in the collections, *Teaching Labs* also strives to draw meaningful connections between archival materials and what is taught in the classroom. In partnership with Hong Kong schools and educators, a supportive learning community has been developed, which encourages teaching and learning of contemporary art in the formal education setting.

Art as Knowledge

Art plays different roles in education, responding to different socio-cultural and historical contexts. Responding to changing contexts and learning needs in the 21st century, a growing number of art educators and scholars have proposed a socially responsive approach of art education with the aim of helping students reflect and recognise challenges in everyday life, their society, and the world through learning contemporary art. The ultimate aim is to encourage and empower them to make constructive responses to the world.

Moving beyond and challenging the notion of 'art for art's sake', and the sole aesthetic value for self-expression, contemporary artists frequently reflect on and address socio-cultural issue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everyday life. Grounded on real world issues that directly impact young people, their artistic practices broaden the space for enquiry-based learning, expanding from the well-understood skills-based approach to creating platforms to examine the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s where the art was made. These practices reflect the current time and place where the students are situated and which they inhabit, and from here they can imagine the possibilities of change.

Context in Hong Kong: Curriculum Reform

The new senior secondary visual arts curriculum has been implemented in Hong Kong since 2009, which has challenged teachers to move beyond the studio-focused approach to explore new teaching methodologies to facilitate a more holistic way of learning. The new curriculum and assessment require students to demonstrate the ability of art writing (appreciation and criticism) and art making, with competence to critically analyse and reflect on art from a broad cultural and historical context, and relate it with personal experiences and reflection through artistic expression. In light of the changes, teachers expressed difficulty and a lack of confidence in bringing contemporary art into the classroom with their own level of knowledge in the area. In addition, the limited exposure to contemporary art in Hong Kong for both teachers and students made it even more difficult to introduce the subject matter in the classroom.

Teaching Labs

Under this background, AAA, as a resource of recent art histories of Asia, initiated its learning programs to support and supplement the mainstream education, striving to be a thought leader and ongoing partner with teachers to face these challenges, and to rethink the role of art and education in the contemporary context.

To achieve this mission, AAA's teacher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s have evolved over the course of a decade to ensure the continued relevancy of L&P programs to the education community with the support of our Teachers Sounding Board, which is composed of 15 visual art teachers from local and international schools in Hong Kong.

Reflecting on the nature of contemporary art and

the way teachers teach in the classroom, starting from 2018, *Teaching Labs* moved beyond the approach of a linear historical narrative to a thematic approach. The annual themes are in line with AAA's content priorities. AAA drives the composition of its Research Collections with key areas of concern known as content priorities. These include examining sites where art history has been written in Asia through the lens of art writing, exhibitions, and pedagogy; looking at ideas that connect us beyond national borders (complex geographies); considering tradition and contemporary expression in parallel; investigating ephemeral practices such as performance art; and addressing gaps in art history and in our collection such as the imbalance of the representation of women. The content of *Teaching Labs* is drawn from one of these content priorities; each program makes use of a Research Collection as a point of departure for learning and teaching contemporary art. In 2018, the *Teaching Labs* series discussed women in art history, whereas in 2019 the focus was on performance art.

Program Design

In order for the programs to effectively expand what is taught in the classroom, L&P designs the *Teaching Labs* series and Online Resources as a whole. They both aim to promote creativity by exploring innovative ways of teaching and practicing art through activating AAA's Collections. They draw meaningful connections between historical contexts, artistic practices, and education. The format of *Teaching Labs* is designed to enrich teachers' knowledge and facilitate their implementation of what they learn into a classroom setting.

Each *Teaching Labs* program is divided into two days.

The first day involves a talk on AAA's Collections and its specific historical context, followed by a workshop led by a local artist-educator that engages teachers with different exercises in relation to artistic practices explored in the talk. Teachers will then implement what they learned in their classes, and gather again two months later to share their experiences. The teaching ideas shared by participants will contribute to the Online Resources to share with the wider teacher community in Hong Kong and beyond.

2019 *Teaching Labs*: Performance Art

The *Teaching Labs* series in 2019 focused on performance art. Performance art is a unique way of expression that has been integral to the development of contemporary art. It adopts a non-traditional and de-materialised approach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of art with individuals and society. However, for many teachers and students, performance art often appears mystifying, and the topic impossible to teach. Furthermore, the content of performance art is often associated with social and political issues, and thus considered sensitive. This creates further barriers for teachers to introduce this art form to the school setting.

The two *Teaching Labs* programs organised this year aimed to loosen these kinds of conceptions around performance art, and explored with teachers ways to introduce this particular art form to their students. Using the Kwok Mangho Frog King Archive and the Lee Wen Archive as points of departure, the programs explored questions such as 'what is performance art,' and 'why is it important?' How can performance art inspire us to rethink possibilities of art and education? Through the case studies of Frog King and Lee Wen, teachers developed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ultural and historical contexts in

which performance art has been developed in Hong Kong and Southeast Asia. Together with the hands-on workshops led by artist-educators, teachers were empowered with confidence and started to take the initiative to introduce new content to their classes.

To further encourage mutual learning and facilitate teaching of performance art, the teacher sharing session allowed teachers to raise questions and share challenges and practices in classroom implementation. A learning community was formed during this peer-support process of co-learning and co-creation of teaching plans and trying out new ideas in their schools.

As a companion of teachers, L&P also proactively responded to the lack and challenges discovered during the teachers' learning process. This year, an additional performance art appreciation workshop was organised as a result. While visual arts teachers are familiar with methods of analysing art forms such as paintings and sculptures, how can these be extended to performance art? What sort of criteria might we formulate to critique and evaluate it? Using actual field studies, documentations from AAA's Collections, as well as examples of artworks, the workshop discussed ways to appreciate performance art, and offered an introduction to basic aesthetic theories. The workshop increased teachers' confidence in teaching contemporary art, and also suggested ways for offering guidance to students and thus improving their works. The workshop was well received by participating teachers.

Looking into the Future

By activating its collections for learning and teaching, AAA has encouraged teachers' confidence in teaching contemporary art in the classroom and built a supportive

learning community. This community has the potential to be further activated to create a sustainable impact to even more educators and their students. The issue of lack of resources and materials on contemporary art of Asia in classrooms is not unique to Hong Kong, but is an issue that needs to be addressed in global classrooms. Building on the past ten-year endeavours in art education, AAA aspires to extend its reach through programs and online resources, in partnership with like-minded organisations in the region, and collaboratively contribute to a more generous art history by expanding what is taught in classrooms around the world.

Susanna Chung Yuk Man
Head of Learning & Participation,
Asia Art Archive

Having initiated the Learning & Participation Department at Asia Art Archive in 2007, Susanna Chung Yuk Man has worked extensively to raise public awareness of contemporary art and lead the cultural learning strategies, projects and partnerships in Hong Kong and across Asia, including India, Vietnam, Sri Lanka, Myanmar and Nepal. Chung has participated as a speaker and a moderator in a number of art education forums, including *Worlds Together*, a conference organised by the Tate Modern, the Royal Shakespeare Company, the National Theatre and the British Museum (London, 2012); *March Meeting: Education, Engagement and Participation*

organised by Sharjah Art Foundation (Sharjah, 2016); the 35th World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Education through Art (Seoul, 2017); and *Expanded Field: Redefining Arts Education in Hong Kong* (Hong Kong, 2019). Chung received her BA and MEd from the University of Hong Kong. In 2016, Chung was selected as the International Fellow of the Clore Leadership Program (2016 – 2017) in the United Kingdom. Prior to that, she was awarded the Starr Foundation Fellowship (2010 – 2011) by the Asian Cultural Council to research audience development and education programs at various art institutions across the United States. Chung is serving as an advisory board member of the Core Curriculum and General Education of the Lingnan University, Hong Kong.

유권자 미술관: 류블랴나현대미술관의 경우

보야나 피슈쿠르

Constituent Museum:
The Case of Moderna Galerija, Ljubljana

Bojana Piškur